

시론



박노식 시인·시엔영 원장

가슴에 돌이 된 꽃, 오월

이다. 오월이 코끝에 다가오면서 붉은 장미의 향도 함께 따라오겠지만, 웬지 코끝이 찡해지는 건 오월의 아픔 때문이다.

올해로 광주 5·18 민주화운동 46주기를 맞았다. 기관, 단체, 학교 등 곳곳에서 오월 영령들을 추모하는 행사를 치를 예정이다.

필자가 근무하고 있는 '시인 문병란의 집'의 문학관에서도 오월을 기리는 시화전을 펼치고 있다. 매주 동구 주민들이 모여 시를 쓰고 합평하고 시문집을 발간하는 동호회인데, 오월은 특별히 오월의 시를 쓰고 그 시를 그림으로 표현하는 특별전을 마련했다.

송영주 회원은 그 당시 지산동에 살았고 중학교 1학년 때 5·18을 겪었기 때문에 생생한 기억으로 시를 쓰고 그림을 남겼다. 작품 「계절의 여왕, 오월이 오면」을 보면,

80년, 계절의 여왕 오월 /이유도 모른 채 꽃들은 하염없이 눈물을 흘렸다 //눈이터에서 뛰놀던 아이는 아버지 영정사진을 들었고 / 벗들과 꿈을 나누던 소녀, 소년은 /책방에 책 대신 돌을 담았고 /카네이션을 단 어머니는 /자식의 관을 찾아 해매고 /5월, 그날의 봄비는 /자식을 기다리는 어머니의 눈물이었다 //

다시 계절의 여왕, 5월 /꽃들의 향연이 시작되었다 //피지도 못하고 저버린 청춘 /그들의 가슴에 /꽃 중의 여왕, /빨간 모란 한 송이 달아주려다 //그대들이여, 이제는 활짝 피어라

「꽃들은 하염없이 눈물을 흘렸다」는 구절이 가슴을 아프게 한다. 어김없이 오월이 왔고 이제 더는 울지 않는 꽃들로 활짝 핀 오월은 아름다워야 한다.

마당 한 편이 1m 높이의 치자나무 숲에 오목눈이가 다섯 알을 낳았다. 부화의 과정을 지켜보면서 이들을 고양이로부터 보호하기 위해 검정 천으로 나무 둘레를 막아놓았다. 부화 후에는 주위에 빙 둘러 다시 짙레 넝쿨을 깔았다. 이소(樂巢)하기까지 가슴을 졸이며 지켜볼 참인데 늘 걱정이 되는 건 도둑고양이 때문이다.

포악한 군주처럼 이기적일 때 사람이나 짐승들도 자기 욕구에만 빠져 주변의 평화를 깨뜨리는 경우가 허다하다. 이 조그마한 오목눈이 보호에도 관심이 필요한 것은 약자에 대한 사랑이 존재하기에 가능한 일일 것이다.

오월 이른 아침에 비둘기 우는 소리로 마음을 가다듬는다. 산 여기저기에서 들려오는 그 소리에 귀를 기울일 때마다 나의 존재를 확인하게 되니 고개가 절로 숙여진다.

社說

5·18 기념행사가 K-민주주의 축제로 승화되려면

제46주년 5·18민주화운동 기념식이 광주 동구 옛 전남도청 앞에서 열렸다. 이재명 대통령은 "4·19혁명과 부마항쟁, 그리고 5·18민주화운동은 6월 항쟁을 거쳐 촛불혁명과 빛의 혁명으로 이어졌다. 5·18정신이 헌법 전문에 수록될 수 있게 최선을 다하겠다"고 여야의 초당적 협력과 결단을 호소했다.

옛 도청은 당시 시민들이 분수대를 연단으로 삼아 각종 집회를 열었던 장소로, 2019년부터 진행된 복원 작업을 마치고 이날 정식 개관했다. 헌법 개정안이 국회에서 의결되길 학수고대했지만 광주 바람은 끝내 물거품이 된 듯했다. 해서 명분 없는 정쟁을 일삼은 정치권을 향한 책임론이 거세지고 있다. 반대 당론을 정하고 표결에도 참여하지 않은 국민의힘은 말 뿐인 참배와 기만적인 쇼를 중단하고 진정성을 증명해야 할 것으로 보인다.

국가 폭력과 헌정 유린을 다시는 용납하지 않겠다는 방언벽을 세우는 선언이자 약속이다. 광주·전남 지역사회는 헌법 수호를 꼭 완수하겠다는 의지를 불태우고 있다. 대한민국을 끊임없이 구해낸 숭고한 희생을 기록하고 특별한 예우를 강력하게 요구하고 있다. 전남 전야제에서도 참

석자들은 전문에 오월정신을 담기 위한 과제와 12·31내란의 완전한 단죄를 위한 과업에 대한 결의를 다졌다.

급남도 일대는 물론 광주 도심 곳곳에서는 추모와 체험 행사 등을 통해 5·18영령을 기리며 민주주의를 되새기는 축제의 장이 펼쳐지고 있다. 1980년 5월 공동체의 나눔과 대동 세상이 그대로 재연됐다. 세월호·이태원 등 사회적 참사 유가족들도 함께하고 있다. 민주주의에는 전국에서 찾은 수많은 시민에, 외국인의 발길도 찾아지고 있다. 원형복원을 마친 최후 항쟁지 옛 전남도청도 조영되고 있다. 광주가 피워낸 민주와 인권, 평화의 가치를 기억하고 연대하며 국민 통합의 원동력으로 삼아야 할 것이다.

비록 39년 만의 기뻐했던 개헌이 무산됐으나 민주주의 의미를 다시금 느끼며 수호를 위한 다짐은 더 강해졌다. 모든 대한민국인들이, 젊은 세대들이 그날의 아픔을 공유하고 역사를 계승하는 발판을 놓아야 한다. 발포 책임 및 행방불명자 등 진상 규명을 조속히 완결해야 한다. 내란이 불가능한 나라를 만드는 길이다. 5·18정신은 헌법에 새겨질 것이다. K-민주주의는 반드시 승리한다.

지방선거 무더기 '무투표 당선' 우려 커지고 있지만

6·3지방선거에서 출마 후보자가 공장 당선되는 사례가 급증했다. 중앙선거관리위원회 집계 결과, 광주·전남에선 기초단체장 2명, 광역의원 34명, 기초의원 20명, 기초의원 비례대표 24명 등 총 80명이 단독으로 등록했다. 특히 79명이 더불어민주당 소속이며, 무혈입성했다. 갈수록 1당 독점 구조가 뚜렷해지고 있다.

유권자의 참정권이 심각하게 침해당하고 있다는 지적이 꾸준히 제기돼 왔다. 민주주의 제도가 퇴색하고 있다. 제도 개선이 절실한 상황이다. 시민들도 황당하고 의아스럽다. 더 큰 문제는 무투표 당선자의 정보 접근에 제한이 따른다는 것이다. 공직선거법상 2일부턴 시작되는 선거운동을 할 수 없기 때문이다. 벽보나 현수막 게시는 물론 이력과 공약을 확인할 공보물도 발송되지 않는다.

불필요한 선거 절차와 비용을 줄여 효율성을 제고하는 차원이라고 하지만 그 폐해가 극심하다. 대의민주주의에서 투표는 가장 핵심적인 정치참여 방법으로 꼽힌다. 유권자는 자신의 선호와 이익을 대변할 대표자를 지지하고, 당

선자는 대표성과 정당성을 획득하는 방식인데도, 얼굴조차 모른 채 지역 일꾼을 선출해야 하는 '깜깜이'가 확대되고 있다. 거대 양대정당의 대립이 격화하고, 양극화에 따라 이어지는 고질적인 행태다. 합리적 대안을 적극 모색해야 하는 때다.

우선적으로 3·5명을 뽑는 중대선거구제를 더욱 늘렸으면 한다. 또 찬반 의사를 묻도록 하자는 의견에도 귀를 기울여야 한다. 제3정당이나 무소속이 견제력으로 성장할 토대를 만들어야 하는 것이다. 건강한 경쟁이 실종되고 있다. 지방자치 발전에도 걸림돌로 작용할 가능성이 높다. 최소한의 알권리 보장이 시급하다. 검증 기회를 부여해야 한다. 근본적인 정치개혁 논의를 시작해야 한다.

무투표 당선자가 무더기로 나왔다. 특정 정당의 공천이 당선으로 연결됐다. 전국에서 513명에 달한다. 역대 최다 사태다. 주민들의 목소리가 제대로 반영될 수 있도록 선거문화를 혁신해야 한다. 지금대로면 무관심만 낳을 게 뻔하다. 우리가 커지고 있다.

기고



노경수 전남도 수도권 공공기관 민간유치위원 광주대 도시부동산학과 교수

공공기관 이전, 산업생태계 조성이 경쟁력이다

쟁'이 아니라, 공공기관과 산업·대학·기업·연구개발을 어떻게 결합해 새로운 성장생태계를 만들 것인가가 핵심이 되어야 한다.

전남·광주는 더 이상 분리된 행정구역으로 접근해서는 안된다. 수도권 집중과 지방 소멸이라는 위기에 대응하려면 광주와 전남 전체를 하나의 산업권·노동시장권·생활권으로 묶는 메가시티 전략이 필요하다. 이 구조에서 광주는 메가시티를 이끄는 핵심 중심 도시 역할을 맡아야 한다. 광주는 대학·의료·문화·행정·AI·미래모빌리티 기반을 갖춘 호남 최대 도시이며, 공공기관과 연구개발 기능을 집적할 수 있는 가장 현실적인 성장 거점이다. 따라서 정책·R&D·고급인재 기능은 광주 나주축에 전략적으로 집중시킬 필요가 있다. 특히 AI·에너지·미래모빌리티와 연계된 핵심 기능을 집적해 산업 간 융합과 시너지를 극대화해야 한다. 정책기관과 연구기관, 대학과 기업이 가까이 모여야 혁신 속도가 빨라지고 청년 인재도 정착할 수 있다. 결국 메가시티 경쟁력의 핵심은 집적에 있기 때문이다.

그러나 메가시티는 광주 일극집중 구조로 만들어지지 않는다. 광주는 초광역 혁신축 역할을 맡되, 목포와 순천 역시 각각 서남권과 동부권의 핵심 거점도시로 육성해야 한다. 목포권은 해양·해상풍력·공항·항만 산업 중심의 서남권 산업거점으로 발전할 필요가 있다. 무안국제공항과 목포신항, 신안 해상풍력 자원은 서남권 발전의 핵심 기반이 될 수 있다. 특히 RE100 산업과 해상풍력 산업은 향후 대한민국 에너지 전환의 핵심 축이 될 가능성이 크다. 순천·광양권은 수소·물류·탄소중립 산업 중심의 동부권 산업거점으로 기능해야 한다. 광양항과 여수산단은 이미 국

가 산업 기반을 갖추고 있으며, 앞으로 탄소 저감과 산업 전환의 핵심 거점이 될 가능성이 크다.

따라서 공공기관 배치는 단순한 지역 안배가 아니라 전략산업과 연계한 거점형 집적 방식으로 접근해야 한다. 광주 나주축에는 AI·에너지·미래차 관련 정책·R&D 기능을 집중시키고, 목포권은 해양·해상풍력·공항·항만 산업 중심의 서남권 산업거점으로, 순천·광양권은 수소·물류·탄소중립 산업 중심의 동부권 산업거점으로 육성해 권역별 산업클러스터를 구축하는 방식이다. 이는 기관을 기계적으로 나누는 것이 아니라, 광주를 중심으로 목포·순천 거점을 연결하는 다핵 네트워크형 메가시티 전략에 가깝다. 광주가 초광역 중심축 역할을 하고, 목포와 순천이 권역별 산업거점 역할을 수행하는 구조다.

무엇보다 중요한 것은 이 세 거점을 하나의 초광역 네트워크로 연결하는 일이다. 광주 목포 순천을 초광역 교통망과 디지털 정보망으로 긴밀하게 연결해 1시간 이내 생활권으로 통합해야 한다. 그레아 청년과 기업, 연구인력과 산업이 자유롭게 이동할 수 있는 단일 생활권과 공동 노동시장권이 형성된다.

전국 전남광주통합특별시의 성패는 공공기관 몇 개를 더 가져오느냐에 달린 것이 아니다. 핵심은 공공기관과 전략산업, 대학과 기업, 연구개발과 교통망을 하나의 산업생태계로 연결할 수 있는가에 있다. 전남광주통합특별시 역시 광주를 중심으로 목포와 순천을 연결하는 초광역 산업생태계를 구축할 수 있을 때 비로소 대한민국을 대표하는 경쟁력 있는 메가시티로 성장할 수 있을 것이다.

공공기관 2차이전 전문가 릴레이 기고

국민권선정부가 추진하는 2차 공공기관 지방이전 정책은 과거와 분명히 다른 방향으로 가고 있다. 참여정부 시절 혁신도시 정책이 수도권 공공기관을 지방으로 나눠 배치하는 데 초점이 있었다면, 이번에는 산업과 연계된 전략적 재배치에 무게가 실리고 있다. 이재명 대통령이 "장작을 흩어놓으면 불이 붙지 않는다"고 말한 것도 같은 맥락이다. 공공기관만 지방에 이전해서는 지역이 살아나지 않는다는 문제 의식이다.

실제로 과거 혁신도시 정책은 일정한 성과에도 불구하고 한계를 드러냈다. 기관은 내려왔지만 기업과 청년, 산업생태계는 함께 움직이지 못했다. 결국 수도권 집중 구조도 크게 바뀌지 않았다. 그래서 이번 2차 공공기관 이전은 단순한 지역 안배가 아니라, 공공기관과 전략산업을 결합한 혁신클러스터 구축이 핵심 과제로 떠오르고 있다.

이 점에서 전남광주통합특별시 논의는 매우 중요하다. 전남과 광주는 이미 AI, 미래차, 에너지, 해상풍력, 광양만권 산업벨트 등 국가 전략산업 기반을 상당 부분 갖추고 있다. 따라서 이제는 '기관 하나 더 가져오기 경

독자투고



파스한 봄바람이 반가운 계절이지만, 소방관들에게 봄은 일년 중 가장 긴장되는 시기이다. 건조한 공기와 강한 바람이 맞물리는 이 시기에 작은 불씨 하나가 순식간에 거대한 화마(火魔)로 번져 소중한 산림을 집어삼킬 수 있기 때문이다.

최근 몇년간 발생한 대형 산불의 통계를 살펴보면 대부분이 산행객의 부주의, 논·밭두렁 소각, 담배꽂초 무단 투기 등 인재에서 비롯된 것으로 나타났다.

이는 매우 안타까운 현실로, 현장에서 마주하는 산불은 단순히 나무를 태우는 데 그치지 않고 수십년간 형성된 생태계를 파괴하

봄철 불청객 '산불' 예방만이 최선의 '진화'

며 인근 주민의 삶의 터전과 생명까지 위협하는 중대한 재난이다.

산불은 한번 발생하면 지형적 특성과 바람의 영향으로 진화가 매우 어렵다. 따라서 가장 효과적인 대응은 '발생 자체를 막는 예방'에 있어 다음과 같은 안전 수칙 준수가 필요하다.

첫째 입산 시 화기 소지를 금해야 한다. 산행 중 취사나 흡연은 산불 발생의 주요 원인이며, 지정된 장소 외에서의 불씨 사용은 본인뿐 아니라 타인의 안전까지 위협하는 행위이다. 이어 논·밭두렁 및 쓰레기 소각을 중단해야 한다. 봄철 해충 방제를 이유로 한 소각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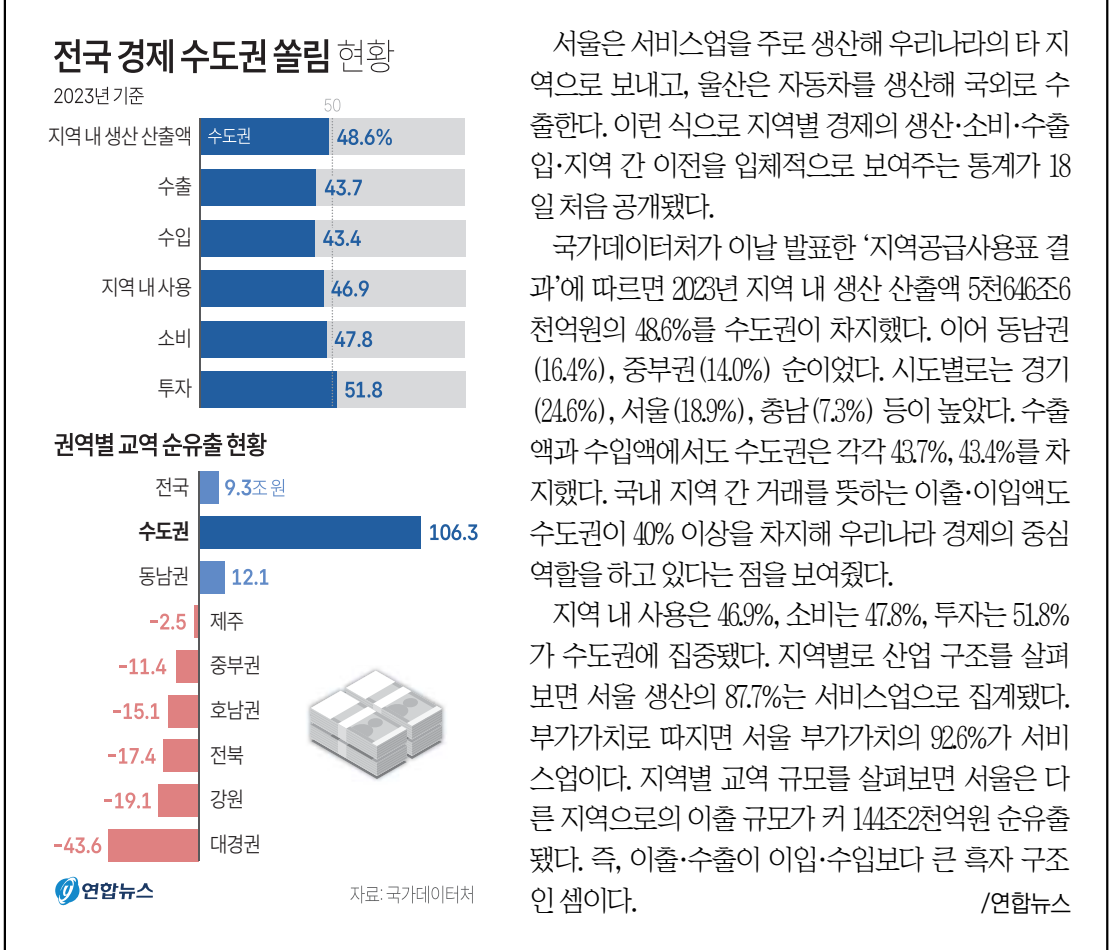
은 효과가 미미할 뿐 아니라 산불로 이어질 위험이 매우 크고, 강풍 시 소각 행위는 절대 금지되어야 한다.

마지막으로 산불은 발견할 경우 즉시 119에 신고해야 한다. 초기대응이 산불 확산을 막는 결정적 요소이므로, 작은 연기라도 발견하면 지체 없이 정확한 위치를 신고하는 시민의 협조가 필요하다

이번 봄 '나 하나쯤이야'라는 생각 대신 '나부터 먼저'라는 책임 있는 실천으로 산불 예방에 동참해 주시기 바란다. 우리의 작은 관심이 푸른 숲을 지키는 가장 확실한 방법이다. <함경수·광산소방서 119구조대 소방장>

* 독자투고를 기다립니다. 하고싶은이야기·사진 등을 보내주세요 * 외부필자의 기고는 본지의 편집방향과 일치하지 않을 수도 있습니다

그래픽 뉴스



광주매일신문 1991년 11월 1일 창간 http://www.kjdaily.com

부회장 馬讚皓 사장·발행·편집인 李庚秀 논설실장 金鍾民 편집국장 朴恩成

(우)161636 광주광역시 남구 천변로338번길 16 대표전화 (062)650-2000 구독신청·배달안내 (062)650-2022

편집부	650-2090	지역특집부	650-2060	광고문의	650-2099	FAX	
정치부	650-2030	사진부	650-2080	마케팅본부	650-2070	광고국	650-2016
경제부	650-2050	논설실	650-2006	경영지원국	650-2011	편집국	650-2017
사회부	650-2040	T V 본부	650-2009	사업본부	650-2007	입문국	650-2019
문예부	650-2065	서울지사(02)	786-9488	업무국	650-2020		

*본지는 한국신문윤리위원회의 서약서로서 신문윤리강령을 준수합니다. *2022년 4월 30일 등록. 등록번호: 광주가10(日) *구독료 월 15,000원 1부 800원